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0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개혁 총궐기로 막자!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포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구조개혁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23일 서울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결기가 동시에 들어 있었다.

월급 도둑질, 살인 면허제, 평생 노예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렇게 표현했다. “임금피크제는 월급 도둑질, 일반해고제는 살인 면허제, 청년고용은 노예계약, 평생 비정규직” 이미 해고가 일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라 임금피크제는 하고싶어도 할 수도 없다.

이런데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일반해고를 자유롭게 만들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광고한다. 재벌들은 공간에 700조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 깎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재벌들은 그동안 어떻게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끝없는 이윤을 만들어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자본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노동시장 개혁은 결국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민중총궐기로 반격한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늦춰왔다.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던 박근혜 정부도 하반기까지 밀리자 강행하겠다는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체 민중의 단결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11월 14일 전국적인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10월 14일 지역 민중대회를 진행했고, 충북지역은 10월 30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지역 민중대회를 연다. 지역별로 모아진 힘을 11월 14일 하나로 모아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와의 끝장투쟁이 다가온다.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을 준비하자!

체불임금 받기 전에는 안내려온다!

피엘에이지회 조합원 25명이 19일 서울본사에 올라갔다. 4월부터 체불 중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다. 벌써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는 답변이 없다. 그저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소리만 들려온다.

피엘에이 대표이사는 대전노동청장의 중재로 체불임금 약속서를 두차례나 작성하고도 여전히 체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김국배 지회장은 “10월17일 유상증자를 했다. 120억 원이 들어왔지만 한 달 동안 묶여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교섭에서 한 얘기인데 지키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회사를 믿지 못한다”며 거짓말만 일삼는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본사에서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더불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구조조정 이후 대전공장의 LCD 재생산을 위한 영업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무성 망언 사과! 콜텍 결의대회

- 일시 : 2015.10.27(화) 13시
- 장소 : 서울 새누리당사 앞

세상을 뒤집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충북 민중대회

- 일시 : 2015.10.30(금) 16시
- 장소 : 청주 상당공원